

# 대학주보



4~5 » 후마니타스 칼리지 출범 4년, 변화가 필요하다



12 » 인터뷰 – 손지훈 대한민국건축대전 대상 수상자



학사다이어리 – 국가장학금 신청

- 신청기간: 11월 20일 ~ 12월 8일 오후 6시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문의: 1599-2000)
- 성적기준: 직전학기 평점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 올해부터 기구원 정보제공동의 필요, 학부모 공인인증서 준비필수



## 18대 노조 위원장 송혜경 후보 당선

노동조합 임원 선거 결과 개표가 진행됐던 지난 20일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 12년 만에 진행된 경선이었던 만큼 많은 유권자 432명 중 423명이 투표해 97.9%의 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이목이 집중됐다. 결과는 기호 1번 송혜경 위원장 후보와 김용은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총 423표 중 243표(57.6%)를 득표해 기호 장백기 위원장 후보와 김종민 수석부위원장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27년 노동조합 역사상 최초의 여성 노동조합 위원장이 탄생한 순간이기도 했다.

## 오락가락 중선관위 선거 불신 키워

### 논란 속 국제캠 총학 선거

김윤철 기자 kycxellos@knu.ac.kr  
이승연 기자 leesy0317@knu.ac.kr

【국제】총학생회(총학) 선거가 연속적인 이의제기와 선거 시행 세칙 위반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Klass Up' 선거운동본부(선본)와 '친 KHU' 선본, 양 선본 모두 총학생회 후보 등록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작은 지난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Klass Up' 선본은 약력서류에 입후보자 이름을 오기한 채로 후보자 서류를 제출했다. 이를 검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오기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후보추천서를 발급했다. 결국 'Klass Up' 선본에서는 후보추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중선관위의 과실로 약 1,200장의 후보 추천서를 전량 폐기해야 했다. 이후 'Klass Up' 선본은 사과를 요청했고 이에 중선관위는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우리학교 홈페이지 커뮤니티(community.knu.ac.kr)에 게재하기도 했다.

잡음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중선관위는 지난 17일 0시 경에 '친 KHU' 선본의 총학생회 후보를 제출서류 미비로 인해 후보 등록을 취소했다. '친 KHU' 선본이 제출한 서류에서 '전체 추천자수 기준인 1/10을 넘었지만 5개 단과대학에서 1/1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하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열린 긴급회의 결과, "선거

거하여 등록 마감시간 이후 출입할 수 없으므로 미비된 서류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선관위원들의 중론이 모아져 '친 KHU' 선본의 총학생회 후보등록을 취소했다.

하지만 '친 KHU' 선본 측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20시 30분에 시작된 '5차 중선관위'에서 후보자격 박탈에 대해 '중선관위 인원부족 문제로 후보등록 과정이 늦어졌다' 등의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제기 내용의 핵심은 서류제출

시기와 마감시간 전 이었던 만큼 결론을 빠르게 제시했을 경우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중선관위는 논의 결과 이의제기의 일부분을 받아들여 후보등록을 진행시키기로 했다.

결국 지난 18일 열린 중선관위 긴

급회의에서 '친 KHU' 선본의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과 'Klass Up' 선본의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했다.

'Klass Up' 선본은 '친 KHU' 선본의 과실로 등록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후보를 등록시켜주는 것은 편파판정'이며 '5개 단과대학 1/10이상의 추천수를 정해진 시간내에 가져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등록을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중선관위 측은 두 선본의 요청과 이의제기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선관위의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후보등록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6면으로 이어짐

## 이기심이 아니라 동감이야! 《도덕 감정론》

###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④

윤원근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사상에 대한 통속적 이해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이기심을 추구하도록 시장을 자유롭게 방임하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동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 이런 이해가 맞다면 스미스는 진짜 바보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기심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자

동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바보가 어떻게 경제학의 아버지일까? 경제학은 바로 학문인가? 그러나 통속적 이해가 잘

못되었다면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 이 바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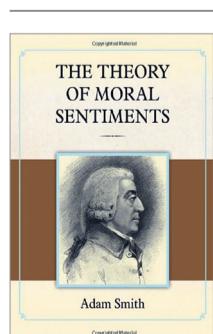
누가 바보일까? 스키델스키(Skidelsky) 부자는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라는 책에서 통속적인 이해를 따라 스미스가 이기심이 중력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탐욕을 이기심으로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 스미스는 이기심이 아니라 동감을 중력으로 보았다. 스미스는 이기심을 긍정하였지만 동감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생산적인 이기심을 탐욕이라 불리는 과도한 이기심과 구분하였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인

간사에 작용하는 두 차원의 자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사물의 자연적 진행이다. 이것은 사물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물의 자연적 진행을 잘 알고 이용하는 자질을 갖춘 사람은 생산적인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부지런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하고, 반대로 게으르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사업에서 실패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7면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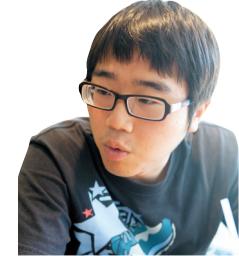
애덤 스미스는 생산적인 이기심과 탐욕을 구분했다.

### 지면안내

- 6면 노동조합 송혜경 위원장 당선  
서울캠 법적 정당성 논란
- 7면 서울캠 총학생회 '우리의 경희' 후보 인터뷰  
6개 단과대학 학생회 후보자 불출마
- 8면 국제캠 총학생회 기호 1번 'Klass Up' 후보 인터뷰  
국제캠 총학생회 기호 79번 '친 KHU' 후보 인터뷰
- 9면 서울캠 총여학생회 '(HER!)들' 후보 인터뷰  
국제캠 총여학생회 '친 KHU' 후보 인터뷰
- 10면 선거 특별 기고 - 총여학생회의 존재 이유

### 알바노동자 필수상식 ④

아르바이트도 노동이다!  
노동자로서 당연히 갖고 있는 권리를 실제사례와 함께 알바노조 경희대 분회 김재섭 분회장에게 들어본다.  
▶11면



# 시선

## 사설

### 후진적인 등록금 논의 구조 재정문제 더 악화시켜

연말을 맞아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캠퍼스의 풍경에서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슈가 있다. 바로 2015학년도 등록금 문제다. 물론 이유는 있다. 내년도를 ‘담당’ 할 차기 종학생회가 꾸려지기 전까지 학생들은 등록금 문제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다. 학교 측이 흘로 등록금 이슈를 꺼내기도 난감하다. 자연스럽게, 등록금 논의는 차기 종학생회가 인수 인계를 마친 내년 1월 말에서야 서서히 시작될 것이고, 정식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2월 말이 다 되어서야 첫 테이블을 가질 테다. 학교 측은 2~3% 인상된 등록금을 가지고 할 것이고, 학생들은 이에 대해 ‘논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하고 기다란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2015학년도의 등록금은 이르면 1학기 말, 늦으면 내년 말쯤에나 확정되게 될 것이다. 항상 그래왔듯이.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지금부터 빤히 예견되는 2015학년도 등록금 논의 레이스의 이와 같은 여정은 한 두 해 반복되어온 패턴이 아니다.

우리학교의 재정구조상 수익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등록금은 가장 비중이 높고 중요한 요소다. 때문에 명년도 등록금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차기년도를 맞이한다는 것은 곧 한 해 예산규모가 미정인 상태로 한 해 살림을 시작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 해의 예산이 상시 추경 상태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조직운영과 업무진행을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예산규모에 맞는 업무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한 해 내내 학내 대부분의 조직들이 업무상 혼란상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당해년도 등록금이 당해년도 중반 혹은 말에 이르러서야 확정되곤 하는 현재의 프로세스는 대단히 잘못돼 있다. 그리고 이것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협의 관계자 전원이 무책임한 매너리즘에 빠져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등록금 논의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현행 시스템 구조상 어려운 부분이라면 그 시스템 구조를 개선하면 될 일이다. 가령 차기년도 등록금이 확정될 때까지는 당해년도 종학생회가 책임을 지고 논의 당사자로 나선다든지, 혹은 차기년도 등록금 관련논의를 그 전년도 7~8월 달에 일찌감치 시작한다든지 하는 약간의 조정만으로도 이 문제는 큰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대표는 선거일정을, 대학본부는 회계일정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우리학교가 맞닥뜨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단연 ‘재정’이다. 현재 긴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 해 예산규모는 재정문제의 효과적인 대안이 아닌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 미봉책일 뿐인 한 해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록금 관련 논의 프로세스조차 이토록 후진적일진대, 하물며 ‘재정문제’ 전반에 대해 구성원 대표자들은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란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신뢰를 바란다’는 말이 입에 붙은 학교 측과 종학생회, 그리고 종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들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인구론’ 인문계 졸업생  
90% 논다  
우리학교에서도?**

미디어 여론동향 2014.11.3 ~ 11.9

여론동향팀 khunews@knu.ac.kr

온라인 커뮤니티 ‘쿠플라자’에는 ‘4-1학기 마쳐가는 문과생인데’(2014.11.19)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글쓴이는 방학 때 기업체의 인턴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스펙이 부족해서 쓰지 못했다며, 이번 방학에 어학성적을 만들기 위한 공부를 해야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취업이 힘들지만 노력한다면 결실을 맺을것이라는 응원의 댓글이 달렸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17일 ‘청소년 기흉클리닉’을



#### 이주의 주제 - 총학생회 후보 등록 논란

### 반성 없는 사과는 반복된다

이승연 기자  
<eesy0317@knu.ac.kr>



올해 처음 국제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와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혹을 펼쳐버릴 수 없었다. 후보 등록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보면 누구나 중선관위의 운영과정이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지난 13일 종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Klass Up’ 선본의 1,200여 명 추천인 명부가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고, 16일에는 ‘친 KHU’ 선본의 후보 등록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중선관위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며 일단락됐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의문이 들었던 점은 종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3조 3항인 ‘등록마감시간 이후에는 일체의 등록서류를 발급하지 않으며, 출입할 수 없다.(단, 등록마감시간 이전에 등록 장소에 입실한 경우 필요한 서류-인쇄용 포스터 파일 제외)를 2시간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에 대해 중선관위가 긴급회의와 6차 회의에서 다른 식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16일 자정의 긴급회의 회의록을 보면 “선거시행세칙 5장 23조(등록절차)에 의거하여 등록 마감시간 이후 출입할 수 없으므로 미비된 서류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의

견이 제기됐고 긴급회의에서 다수가 이 의견에 동의해 ‘친 KHU’ 선본의 종학생회 후보등록을 취소했다.

하지만 18일 중선관위 6차 회의록을 보면 중선관위는 ‘선관위 대부분의 의견은 21시 이후 사람은 출입할 수 있지만 서류는 전달 가능하다. 또한 2 항의 2시간 이내는 21시부터 23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캠 종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 모호하다는 점을 떠나서 두 회의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 중선관위의 과실로 후보등록 과정에서 문제 가 발생한 것을 보며 처음 발표했던 사과문은 요청에 따른 형식적인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결국 매일 오락가락을 반복하는 중선관위 결정과 선본들의 사과를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근거없는 소문만 양산한다. 정책대결 대신에 흑색선전에 선거가 매몰된다.

4년 만에 이뤄진 경선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침체된 학생사회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기회를 책임지는 중선관위는 선거 과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끌 의무가 있다. 선거운동기간이 끝나면 투표기간이 시작된다. 남은 기간 동안의 중선관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매끄럽지 못한 선거과정은 구성원에게 불신만 남긴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모습을 토대로 더 이상의 사과가 없길 기대한다.

출되기도 했다.

우리학교 약학대학 육창수 명예교수가 중국 호남성이 주는 우정상(Friendship Award)을 수상했다.(육창수 경희대 명예교수 중국 호남성 우정상 수상/약업신문/2014.11.20) 중국의 경제, 문화, 과학 분야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을 선발해 시상하는 우정상은 호남성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대상의 상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육 교수는 Hunan Tiansheng Biotechnology에서 2010년부터 수석기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회사 연구팀은 침과 관련한 관련 기초이론 연구를 실시했으며, 혈당을 낮추고 심장박동을 강화하며 염증을 억제하는 등 34종의 연구성과를 보였다.

박희수 동문이 제12대 상지대부속한방병원장으로 임명됐다.(박희수 상지대 부속한방병원장/강원도민일보, 2014.11.20) 박 원장은 우리학교 한의대를 졸업했으며 원광대 한의학 석·박사를 수료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시 대의원총회의장과 대한한의학회 이사, 대한경력진단학회장, 상지대부속한방병원 제7대 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의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

## 대학주보를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 세시봉

권오은 (편집장)



교지 고황 제88호가 지난 17일 발간됐다. 한 페이지씩 읽어 나가다보니, ‘대학주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지난 9월에 발간된 취업률에 대한 이야기였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학교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에 머무르는 논의가 아니라, ‘취업을 어렵게 하는 문제의 근원(일자리의 질적 저하)을 파헤칠 수 있는 지적인 작업들을 교육기관으로서 경희대가 임해야 할 과제로 삼는 것’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다.

캠퍼스 곳곳에서는 선거가 본격화됐다. 선거 유인물을 읽는 일이 나름의 쉬는 시간 보내는 요령이다. 이 유인물 안에서도 대학주보에서 제작한 그라프나 표가 왕왕 눈에 띈다. 출처를 표기하기도 하고, 혹은 건너뛰기도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도 몰라주겠지만, 혼자 느끼는 ‘뿌듯함’에 팬스레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생색내려는 것이 아니다. 대학주보가 지향하는 가치가 경희대라는 작은 사회의 ‘공기(公器)’임을 생각해본다면, 대학주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사용하는데 별다른 허락 같은 것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편집장으로서 대학주보가 누군가에게 ‘인용’되고, 또 ‘사용’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더 좋은 신문이 되는 자양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학주보를 왜곡해 이용하려는 시도들’은 단호히 거부한다. 대학주보는 오로지 우리학교의 공기(公器)로 남아야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학주보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됐을 때의 이야기다. 기사의 맥락은 사라지고, 단편만 남은 채 이용되는 순간을 목도할 때마다 답답함을 넘어 걱정할 수밖에 없다. 진실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길 원해왔던 만큼, 억지 주장에 이용된 한 줄이 진실을 호도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갈등이 복잡하게 얹인 학내 곳곳의 사안을 취재할 때마다 대학주보가 둘 중 하나의 ‘편’으로 읽히고 다뤄지는 경우에는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다. 학생기자들은 경희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근거해 매일 취재하고 또 보도하고 있다. 목표에 비해 부족한 능력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또 담금질해 나가야한다고 믿는다. 다만 이런 기자들의 노력만으로는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고 믿는다. 대학주보의 주인인 구성원이 대학주보를 적극하게 사용하려는 노력 역시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과는 다른, 곧 ‘대학주보를 왜곡해 이용하려는 시도들’은 단호히 거부한다. 대학주보는 기자들만의 것이어서 안 되고, 누군가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가 돼서도 안 된다. 오로지 우리학교의 공기로 남아야 하며, 그 방향 아래에서만 쓰여야 한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은, 다시 말해 펜이 칼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임을 구성원 역시 함께 고민해주길 고대한다.

### 알림

####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뉴스와 정보는 물론, 취재과정 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www.facebook.com/khunews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권오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인주)  
구독료 1년·편월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기)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 | 이메일 khunews@kn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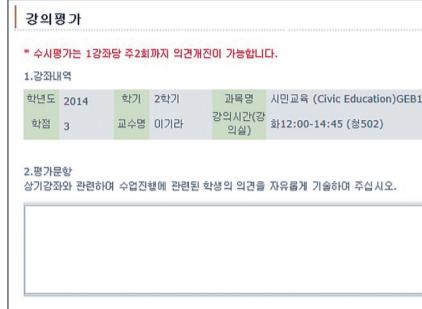
# 평가 참여율 평균 1%대 수준… 교수-학생 간 소통이 중요

## 수시 강의평가

이진우 기자 urusa93@knu.ac.kr

수시 강의평가의 학생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지원과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서울캠)의 지난 세 학기 수시강의평가 참여율은 2013년 1학기 0.84%, 2학기 1.27%, 2014년 1학기 1.3%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역시 2013년 1학기 1.2%, 2학기 1.4%, 2014년 1학기 1.7%의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율 평균은 서울캠 1.13% 국제캠 1.43%에 그쳤다. 양 캠퍼스의 참여율 모두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학생들의 생각을 듣



수시 강의평가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기 위해 참여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대체로 보였다. 서정자(후마니티스 칼리지) 교수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강의의 질을 높이는지 궁금하다”며 “학생들이 적극 참여해줬으면 좋겠지만, 평가를 부탁해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 수시 강의평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양 캠퍼스 학사지원과 측은 참여율이 낮다고 수시 강의평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학사지원과 관계자는 “의명으로 강의의 개선점을 교수님께 전달하고 싶은 경우에 수시 강의평가를 이용한다”며 “수시 강의평가 제도는 학생이 교수님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

는 “강의의 총평을 내리고 다음 학기 강의의 질을 높이는 등의 기능은 정기 강의평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시 강의평가의 도입목적을 감안해보면, 현재의 수시 강의평가는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정기 강의평가만으로는 학기 중 수업 내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2011년 수시 강의평가가 도입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시 강의평가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수시 강의평가 내용을 교수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체계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수가 상시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수시 강의평가에 대

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범희(정보전자신소재공학 2011) 군은 “수시 강의평가에 대해 몰랐다”며 “수업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삼켰다”고 말했다. 박대용(태권도학 2014) 군 또한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수시 강의평가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다양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시 강의평가 역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지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학기 수시 강의평가는 이달 28일까지이다. 우리학교 종합정보시스템 (<https://khuis.knu.ac.kr>)에 접속해 ‘수업/성적/상담’란으로 들어가 강의에 대한 의견을 서술할 수 있다.

## 총장-학생간 공청회… 이사회부터 공간문제까지

### 총장과의 대화

황경선 기자 sunny96@knu.ac.kr  
박기윤 기자 kyoont230@knu.ac.kr

조인원 총장과 학생 간 공청회가 지난 19일 네오누리관에서 열렸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조인원 총장과 총학생회 박이랑(사학 2008) 회장간의 면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참석 학생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소 학생들이 궁금해 하던 ▲이사회 정원에 대한 문제 ▲학내 소수자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 ▲정문 앞 건물의 외부기업 입주에 대한 문제 ▲늘어나는 유학생 수에 비해 줄고 있는 지원에 대한 문제 등이 논의됐다.

가장 먼저 논의된 학생개방이나 대해 조 총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학생 또는 학생회에서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학생이 이사로 참여하기보다는 참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신분 문제로 투표권은 해외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교육부에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한 상태지만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학내 비정규직 중 대표적으로 청소노동자 고용불안 개선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대학에서도 검토를 했다. 우리사회 관행에 따라 외주업체에서 우리대학에 파견 나온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



분들을 범인에서 회사를 설립해 경희대에서 근로하도록 하고 싶다. 그러나 노동계 문화나 정서 같은 것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정문 앞 신축 건물의 외부기업 입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학교 암 전문 병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편의시설을 짓는 것”이라며 “대학문화에 맞지 않는 것은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전달했고 앞으로도 학생·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식 질문시간에 이어서 진행된 참가자들의 자유질문 시간에도 열띤 질의가 오갔다. 정경대학 학생회장 후보로 나선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양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너무 낙후된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경대 신축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당장 신축 진행이 불

가능하다면 특별예산을 편성할 것, 마스터 플랜 건물 완공 이후 정경대 학생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약속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선거 기간 동안 ‘정경대 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모은 712명의 서명 용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총장은 “과 특성을 고려해 실험실습을 많이 하는 이공계열 대학과 한의과 대학 등이 문과대나 정경대에 앞서 개선돼야 한다”며 “한 번에 착공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정 단과대학을 차별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아직은 재원계획수립 중에 있지만 10층 내외의 글로벌 타워의 신축이 결정되면 문과대와 정경대의 신청을 통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수원대 이인수 총장, 논문 표절… 대학, ‘학위는 취소 않기로’

###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심사 결과

권오은 기자 typhoon11@knu.ac.kr  
이재은 기자 jenny95@k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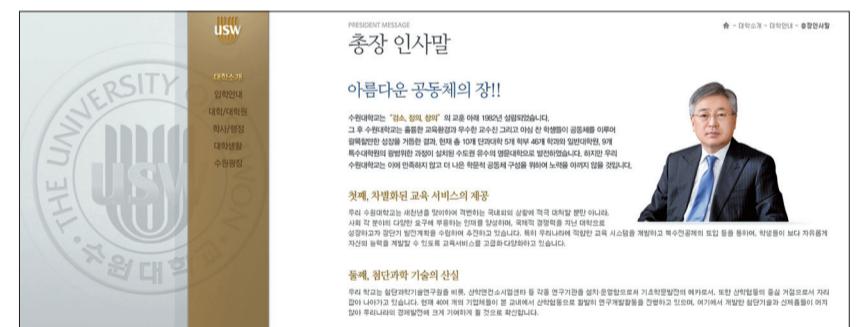
‘특정 부분을 인용표기 없이 서술한 것은 논문 표절에 해당한다. 그러나 1998년 논문 작성 당시에는 본교에 연구윤리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과는 달랐고 출처표기가 문제된 사례연구 부분을 피조사자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외하더라도 논문의 구조나 결론에 문제가 되지 않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박사학위는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박사학위 논문(정부간 갈등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표절에 대한 우리학

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13일 내린 결론이다. 표절은 사실이지만, 표절 부분을 제외하면 논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학위취소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경희대의 입장 전부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수원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측이 이인수 총장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이 ▲출처 미표기, ▲원 저작물 구조 표절 ▲자기논문 표절 등의 문제가 있다며, 우리학교에 확인을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이인수 총장은 지난 1998년 2월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서 해당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수원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측은 학위 취소 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수원대 홈페이지에 ‘총장 행정학 박사 이인수’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 중앙도서관 12월 문화프로그램 안내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는 12월 겨울을 맞아 다음과 같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대학의 문화적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초청작가 봄축일 사진전시회’,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최하고자 합니다.

■ 초청작가 프로그램, 봄축일 작가 사진전시회  
1. 내용 : 백두산 및 도도 사진 작품 전시  
2. 일자 : 2014. 12. 1(금) ~ 12. 6(수)  
3.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재능기부 프로그램, 제12회 전시회  
1. 내용 : 포스터모임음악회와 공연  
2. 일자 : 2014. 12. 2(금) ~ 13(토)  
3.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재능기부 프로그램, 제12회 전시회  
1. 내용 : 서수원(도서관) 서예작품 전시  
2. 일자 : 2014. 12. 12(금) ~ 17(수)  
3.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도서관 재능기부 문화프로그램, 당신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상설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을 비롯하여 학생 개인이나 집단은 공연(음악, 연극 등), 전시회(그림, 사진, 도예 등) 등을 통하여 재능을 자유로이 펼쳐 보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신청 방법 : 이선우(☎ 031-201-3221, E-mail : asqa@knu.ac.kr)  
2. 날짜 : 신청 접수 후 기존 행사 날짜와 조정  
3. 행사 내용 : 자유 형식으로 하여 타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 범위(예: 연주, 전시)  
4. 행사 위치 : 도서관 1층 로비  
5. 공연 시간 : 12시 ~ 13시 사이에서 조정  
※ 전시회의 경우 상의 후 일정 조정 가능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 2014학년도 2학기 정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14학년도 2학기 ‘정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정기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강의평가 결과는 수업의 질 개선과 신규목적 개설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1. 기 간 : 2014.12.01(월)~12.26(금)

2. 대 상 :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3. 대상학과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4. 성적 열람 및 공시 기간 : 2014.12.31(수)~2015.01.05(월)

5. 정기 강의평가 실시 여부 따른 성적 조회 기간

■ 강의평가 실시 학생 : 1차 - 2014.12.15(월)~2014.12.24(금)

2차 - 2014.12.27(토)~2014.12.30(화)

※ 성적일련번호 원로된 강좌에 한함

■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 : 2014.12.31(수)~2015.01.05(월)

6. 정기 강의평가 실시 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수업/성적/상담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2)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할 강좌를 클릭

3) 화면 상단의 단답방법 설명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자유의견)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단추 클릭(저장 후 수정 불가)

4) 강좌목록 화면에서 평가를 마친 과목이 [미실시]에서 [실시]로 변경된 것 확인

5) 실시한 과목의 평가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에는 강좌를 클릭하여 조회

6) 목록에 있는 다른 강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강의평가 실시

7)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모든 강좌가 [실시]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8) 강의평가를 잘못 실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의 강의평가 담당자에게 문의

\* 강의평기는 공정성을 위하여 의명으로 진행됩니다.

교무처 학사지원과



Young Choreographer's Dance Project 2014

11월,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주관

Young Choreographer's Dance Project 2014를 개최합니다.

경희대학 여려분을 초대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연 안내

일 시	2014. 11. 24(월) ~ 11. 25(화) 3pm
장 소	경희대학교 무용학부관 1층 <b>다목적홀</b> (102호)
프로그램	2014. 11. 24(월) 15:00 2학년 창작공연 2014. 11. 25(화) 15:00 3학년 창작공연



### 경희대학교 경희교육포럼

#### I 행사 개요

1. 행사 명 : 경희교육포럼 ‘경희교육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고, 내일을 그린다.’

2. 목 적 : 교수, 학생, 직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경희교육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경희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향후 교육방향을 탐색함으로써 경희교육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함

3. 일 시 : 2014. 11. 26. (수) 14:00 ~ 17:00

4. 장 소 : 경희대학교 청운관 지하 1층(B117호)

5. 주 관 : 경희대학교 교육사업추진단

#### II 행사 주요 일정

14:00~14:10	인사말	지은림 단장 (교육사업추진단)
</tbl





이우균(철학 2013)

엇인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재정 지원부터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실 때문에 안 된다는 데 같은 것이 느껴져 많이 답답하다.”

**강하게 말하면 대형강의할 것이라면, 후마 하지 말아야 한다.**

- 최현웅

최현웅 “대형강의가 진행되면 그건 겉으로만 ‘우리 멋진 거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명이 들어갔을 때 1시간과 100명이 들어갔을 때 1시간 수업은 개인이 말할 수 있는 시간에 차이가 크다. 강하게 말하자면 대형강의할 것이라면, 후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마와 전공교육 혹은 진로, 취업 등과의 연관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 ‘관련있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일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었다. 다만 최근 불거지는 진로나 취업에 맞춰 교양교육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렇다면 정말 실망할 것”, “교수님들끼리 그런 이야기한다면 충격받을 것 같다”와 같은 이야기였다. 따라서 후마가 추구하는 교육목적은 유지하되,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집담회 동안 나온 주된 주장이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장현호 위원장은 여리차례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지, 교양교육의 성과가 어느 수준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이런 냉정한 평가가 진행돼야 대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집담회는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인문·사회계열 소속 학생만 참여했기 때문에, 전공이나 진로 등과의 연계성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어려웠다. 다만 집담회에서 이야기된 내용이 지난 2011년부터 후마와 관련된 문제로 꼽혔던 것과 같은 논점에서 주장됐고, 그 대안 역시 동일하다는 점은 앞으로 후마의 변화를 위한 평가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4년 동안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일정했던 것에 비해,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답을 제시하는 것은 ‘후마’의 몫으로 남았다.

**교양교육이 어느 수준인지 냉정한 평가가 진행돼야 대안도 모색할 수 있다**

- 장현호

## 후마니타스 칼리지 만족하지만 이공계는 “힘들어요”

### 후마 만족도 설문조사

이진우 기자 urusa93@knu.ac.kr  
권오윤 기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 대해 우리신문에서 학생 21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목표와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양 교육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3.5%(33명)이 ‘매우 만족’, 39.4%(84명)가 ‘만족’이라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 중 52.9%가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반에 걸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3.9%(51명)가 ‘보통’, 14.6%(31명)가 ‘불만족’, 6.6%(14명)가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인간의 가치 탐색〉과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가르치는 중핵교과에 대한 만족도 또한 15.5%가 ‘매우 만족’, 37.1%가 ‘만

족’으로 응답해, 총 52.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보통’ 25.8%, ‘불만족’ 33명 15.5%, ‘매우 불만족’ 15.0%의 결과를 보였다. 시민교육 교과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 17.3%, ‘만족’ 26.3%, ‘보통’ 25.8%, ‘불만족’ 15.5%, ‘매우 불만족’ 15.0%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이 이공계열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에 대한 ‘만족도’, ‘전공과목과의 상관정도’, ‘진로와의 상관정도’ 영역 모두에서 높게 나타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문사회계열 응답자 127명 가운데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육 전반에 대해 ‘매우 만족’과 ‘만족’에 답한 응답자는 61.4%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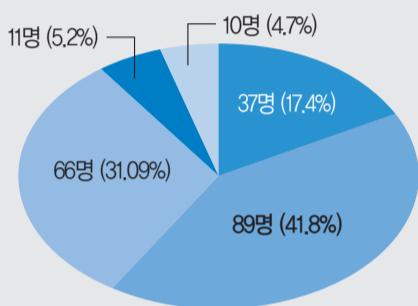
반면 이공계열은 응답자 62명 가운데 40.3%만이 ‘매우 만족’과 ‘만족’한다고 응답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만족도가 21.1%pt 낮았다. ‘전공과목과의 상관정도’도 인문사회계열 36.2%, 이공계열 4.8%를 보여 인문사회계열이 31.4%pt나

높았다. ‘진로와의 상관정도’ 또한 인문사회계열 37.8%, 이공계열 16.1%로 나타나, 인문사회계열이 21.7%pt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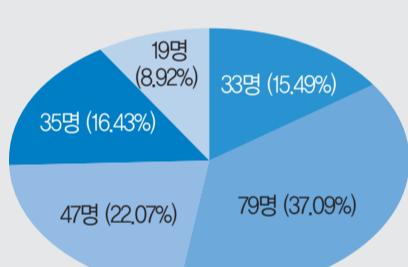
한편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있었다. ‘학생들이 사색하며 토론하는 수업이 아닌 교수의 고리분분한 책읽기 수업이 됐다’, ‘성적이 교수님마다 다른 성향과 강의 방식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 강의에 대한 표준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등이었다. 시민교육 교과 운영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중핵교과의 방대한 교재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흥미유발’과 ‘필요성 인지’가 주를 이뤘다. 특히 흥미를 바탕으로 한 ‘참여’를 강조하는 답변이 상당수 존재해, 현실적으로 강좌 수 증설과 강의방식 변화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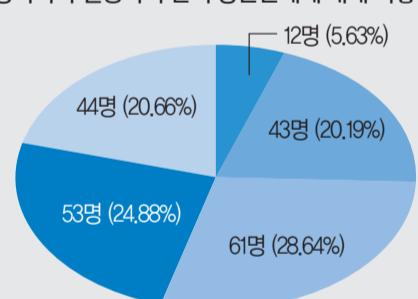
### 〈후마의 교양교육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후마의 중핵교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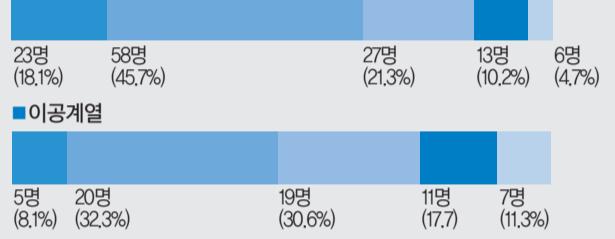


###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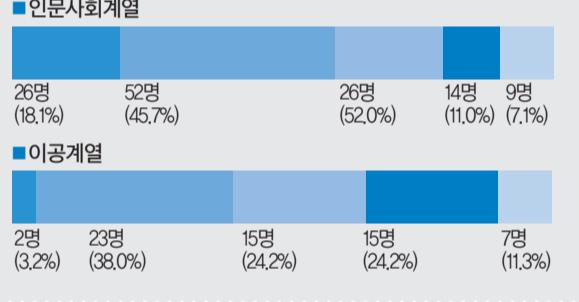


■ 매우 긍정적이다 ■ 긍정적이다 ■ 보통이다 ■ 부정적이다 ■ 매우 부정적이다

■ 인문사회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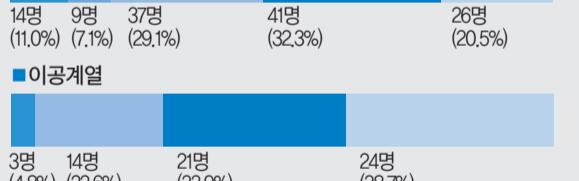


■ 인문사회계열



■ 매우 만족한다 ■ 만족한다 ■ 보통이다 ■ 불만족한다 ■ 매우 불만족한다

■ 인문사회계열



■ 매우 높다 ■ 높다 ■ 보통이다 ■ 낮다 ■ 매우 낮다

■ 인문사회계열



■ 매우 높다 ■ 높다 ■ 보통이다 ■ 낮다 ■ 매우 낮다

■ 인문사회계열



###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	이수구분	학수번호	강의명	강사명	교시	시간	정원	장소	영어강	비고
<b>응용과학대학</b>										
전공기초	미분방정식	AMTH1001-01	미분방정식	전민기: 김경수	1교시	09:00~11:45	57	전221		2014/12/22~2015/01/02
		AMTH1001-02	미분방정식	후민기: 배재현	1교시	09:00~11:45	57	멀304		2015/01/05~2015/01/14
	미분적분학1	AMTH1002-01	미분적분학1	전민기: 김경수	1교시	09:00~11:45	46	전223		2014/12/22~2015/01/02
		AMTH1002-02	미분적분학1	후민기: 최진혁	1교시	09:00~11:45	46	멀107		2015/01/05~2015/01/14
	미분적분학2	AMTH1003-01	미분적분학2	전민기: 김경수	2교시	13:00~15:45	46	전101		2014/12/22~2015/01/02
		AMTH1003-02	미분적분학2	후민기: 박근연	1교시	09:00~11:45	46	전102		2015/01/05~2015/01/14
	미분적분학2	AMTH1003-03	미분적분학2	전민기: 차운심	1교시	09:00~11:45	46	전103		2014/12/22~2015/01/02
		AMTH1003-04	미분적분학2	후민기: 박근연	2교시	13:00~15:45	46	전102		2015/01/05~2015/01/14
	선행대수	AMTH1004-01	선행대수	전민기: 한동윤	1교시	09:00~11:45	44	전217		2015/01/05~2015/01/14
		APHY1001-01	물리학1	이수준	1교시	09:00~11:45	60	멀408		
생명과학대학	전공기초	APHY1003-01	물리학 및 생물학 (이론)	김선경	1교시	09:00~10:50	30	멀407		
		APHY1003-02	물리학 및 생물학 (실험)	김선경	2교시	11:00~12:50	30	멀405		
	전공필수	APHY1003-03	물리학 및 생물학 (이론)	김선경	1교시	09:00~10:50	30	멀407		
		APHY1003-04	물리학 및 생물학 (실험)	김선경	2교시	11:00~12:50	30	멀406		
	전공선택	APHY1004-01	일반물리	김선경	1교시	13:00~14:50	30	멀407		
		APHY1102-01	화학및실습1 (이론)	이상열	1교시	09:00~10:50	30	멀		







##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총여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금혜영(아동가족학 2012) 양

이바름(한약학 2013) 양

### 〈'하:들(HER:들)' 선본 주요 공약〉

공약	내용
총여학생회 회칙제정	자치회비 납부 관련 논의/총여학생회 구성원 명시
생리공결제 UPGRADE	생리공결제 개선제도 시범실시
레드파라솔 DAY	한 학기에 1번 단과대에서 총여와 여학생들이 소통
여학생 지원 프로젝트 : 취업 편	4,5월 서울시 여성일자리박람회 개최(제안 예정)
여성건강 상담부스	1학기에 1번 여성건강 상담부스 진행
여학생 꿈꾸라 캠프	성폭력 문제 및 총여 사업과 내용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

##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한 해 만들 것”



권미정(국제학 2013) 양

### 〈'친KHU' 선본 주요 공약〉

공약	내용
남학생 휴게실 설치	남학생이 쉴 수 있는 곳 마련, 철저한 관리
서울·국제 총여학생회 합동 토론회	총여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류
생리공결제 UPGRADE	교수·학생 간의 토론
성평등 상담실 소속 변경	취업진로지원처에서 학생지원처로 소속 변경
강연 개최	여성 CEO 초청/남성의 책임감 덜기
경희주도 캠페인	잘못된 술 문화와 성폭력 예방

### 서울캠 총여학생회 후보 'HER!들'

이재은 기자 jenny95@khu.ac.kr  
권윤지 기자 happitice@khu.ac.kr

Q. 입후보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A. 정(금혜영) - 최근 총여학생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총여학생회(총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부정적인 인식 해소, 자치 회비 문제 해결, 정체성 확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번 더 잘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부 총여학생회장에 이어 입후보를 결심하게 됐다.

Q. 허:들(HER:들)이라는 선본명의 배경과 의미는?

A. 부(이바름) -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로는 총여의 구성원이 여학생들인 만큼 ‘그녀들’이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뛰어넘어야 하는 허들을 상징한다. 여학생과 함께 여학생들이 처한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Q. 현 총여학생회의 활동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이고, 반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전 부 총여학생회장의 입장에서-

A. 정 - 올해 총여 활동을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레드파라솔 데이’다. 또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호응이 좋았고, 서포터즈 친구들을 모집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도 긍정적이었다. 올해는 ‘소통과 인식개선’에 힘썼던 한해였다. 그런데 총여에는 아직까지 회칙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총여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회칙 제정을 통해 총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때라고 생각한다.

Q. 총여학생회 폐지론이 불거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입장이 듣고 싶다.

A. 정 - 교내에는 아직까지 여학생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사회에서 남녀 취업률 격차는 10퍼센트가 넘는다. 이런 여학생, 더 나아가 여성들의 어려움을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들이 존재 할 수 있는 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한다.

Q. 이번 공약 중 중점사항은?

A. 정 - 회칙제정, 생리공결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등이다. 회칙제정을 통해 투표권, 구성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 명시할 것이고, 생리공결제도 같은 경우에는 남용 사례가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먼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교수님들과도 더놓고 생리공결제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Q. 총여학생회 회칙 제정 : 총여학생회를 여 학생 대표기구로 명문화한다고 들었다. 기준에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을 위한 기구이기도 하다는 주장에서 선화한 셈인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회칙 제정을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A. 정 - 회칙 제정에 대한 배경은 총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즉, 총여의 구성원은 여학생들이고, 자치회비도 여학생들에게 받고, 투표권도 여학생들에게 있다고 ‘문서화’ 할 뿐이다. 이런 과정에서 남학생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학생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Q. 안 그래도 불거지고 있는 성대결 구도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걱정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대안은 무엇인가.(성평등예산위원회 신설 관련)

A. 정 - 우선 총여는 남학생들을 배제하고, 무시하려고 만든 기구가 아니기 때문

에 성대결 구도를 고착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유학생회가 한국학생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 것처럼, 총여가 있다고 해서 남학생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총여가 너무 많은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총여는 회칙 제정을 통해 여학생들의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따로 독립된 기구인 ‘성평등예산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Q. 예산 문제 역시 기존의 공적으로 모두 납부하는 ‘자치회비’라는 입장에서, 각 납부자별 특수성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바뀌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고 우려되는 문제는 따로 없는가?(총유학생회, 총동연, 고황 등의 특수기구 자치회비 문제)

A. 정 - 예전에는 대학에 입학하는 여학생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눈에 많이 띠었다. 자치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회비가 필요한데, 여학생들만 자치회비를 내기에는 기구의 운영이 불확실하고 그 때는 남학생들도 자치회비를 내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자치회비 분배가 총여 예산에도 분배 된 것이다. 또한 자치회비 납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총여를 포함한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라고 생각한다. 총여에 대한 여학생들의 신뢰와 지지율이 높아진다면 자연스레 납부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Q. 끝으로 전체 구성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부탁한다.(전 구성원 대상, 혹은 학생 대상)

A. 정 - 총여는 여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구조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남학생들도 함께 할 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으니 남녀 학생을 막론하고 많은 학생들의 공감과 지지 부탁 드린다.

성평등 상담실이 취업진로지원처 소속이어서 예산편성이나 행사진행에 많은 한계가 있는데 학생지원처로 소속을 옮겨 총여와 활동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여학생 휴게실(달거리카페) 올바로 쓰기’ 및 ‘생리공결제 UPGRADE’ 공약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또 ‘남학생 휴게실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A. 생리공결제는 교수들도 각자마다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리통 때문에 휴식이 필요했는데 출석인정을 해주지 않아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하면 생리공결제를 올바로 이용할 수 있을지 교수, 학생간의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을 찾을 예정이다. 또한 이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 되고, 악용하는 것은 여학생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지 않는 행동이라는 흥보를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여학생 휴게실의 경우는 휴식이 필요한 여학생이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음주 후 이용이나 취식 등 쉬고 있는 학생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남학생도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학교에 남학생이 편히 쉴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다. 음주나 흡연 등 과거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각 단과대 회장과 학생회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것이다.

Q. 끝으로 전체 구성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부탁한다.

A.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화해서 서로 공격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그런 말은 자신의 가족이나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없는 말들이다. 남성과 여성의 모든 모두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학내문화가 구축됐으면 좋겠다.

### 국제캠 총여학생회 후보 '친 KHU'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Q. 입후보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A. 1학년 때부터 총여학생회(총여)에서 집행부, 대표자로 일 했고 올해에는 총여 부회장을 맡으면서 총여의 가치를 많이 느껴왔다.

그런데 얼마 전 총여에 대한 존폐 논란이 일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싶고, 올해 다하지 못한 부분들을 내년에 더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입후보하게 됐다.

Q. 현 총여학생회 부회장의 입장에서 현 총여학생회의 활동의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이고, 반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A. 지난 한 해 동안 총여가 주최한 행사 중 가장 의미있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토크콘서트’다. 1학기에는 곽정은 에디터를 초대했고, 2학기에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의 출연진인 다니엘 린데만, 로빈 데이아나, 줄리안 퀸타르트를 초대해서 많은 학생들과 성에 관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대중성있는 연사들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성 인식을 녹여낼 수 있었고 대규모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이 같은 행사 외에 각 단과대학의 학생들이나 총여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을 더 많이 만나지 못했던 점이 아쉽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Q. 총여학생회 폐지론이 불거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듣고 싶다.

A. 많은 학생들이 총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총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따라서 총여의 존립이 유를 명확히 알리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

다고 느꼈다. 또 총여가 총학생회의 산하기구로 들어가면 어떻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총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총여는 변화의 주체를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생리공결제의 악용 등으로 자신의 권리와 지키지 못하는 여성들 스스로의 인식 개선을 중점적인 목표로 활동할 것이다.

Q. 부 후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부 후보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총여가 존폐논란에 휩싸이면서 위기를 맞은 이유도 있다. 만약 총여학생회장이 되어 더 알찬 활동들로 지금의 위기를 타개한다면 앞으로 많은 후보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다.

Q.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생각인가?

A. 여러 가지 캠페인을 별일 생각이다. 잘못된 술 문화와 술로 인한 2차 성범죄 예방교육, 단과대학 투어, 서울·국제 총여 학생회 합동 토론회, 2박3일간의 ‘공감데이’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봉사하기 등이다.

Q. 주요 공약을 꼽는다면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A. 첫째는 ‘강연 개최’다. 여학생을 위한 강연으로는 여성 CEO를 초청해서 사회 또는 직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문제와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얘기해보는 자리 만들 생각이다. 남학생을 위한 강연으로는 예부터 내려오는 가부장제도 속의 남자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내는 울면 안 된다’ 같은 고리타분한 인식들을 타개하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둘째는 ‘성평등 상담실의 소속 변경’이다. 성평등 상담실은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진행과 학생들의 고민 상담 등 중요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 칼럼

## 선거 특별 기고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에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을 포기해야만 한다.' 현재 총여를 이끌어나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말인 것 같다.

# 우리에게 총여학생회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

필자는 총여학생회(총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방향성은 일반적인 시선들과는 조금 다르다. 필자는 총여가 두고 있는 현행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성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성 이분법적인 구분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제도를 손봄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 뿐이다. 총여의 현행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문제는 '남성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개방해야 한다'는가 '총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지는 못 한다.

등록금과 학생회비가 소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최근 총여 폐지를 주장하는 남성연대가 '남성들의 등록금을 총여학생회에 쓰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지적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정부는 비장애인인 낸 세금을 이용해서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부자가 낸 세금을 이용해서 빙곤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던가? 이처럼 여성이라는 소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여 학생회가 존재하고 여기에 등록금과 학생회비가 쓰이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여기서 여성은 '소수자'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의 성차별이 훌리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각종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고위 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은 4.5%이고(2014 국정감사 자료) 국회의원 수는 15.6%(19대 총선 기준)이다. 그리고 여성의 비정규직의 비율은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보다 10%나 높으며 여성의 평균 소득은 남성의 64.7% 밖에 되지 않는다.(심지어 이 비율은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보고도 우리 사회의 성차별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 일상 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더욱더 깊이 멀기만 하다. 여성은 억압하는 편견, 말 등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이러한 분위기를 타파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회 운동을 한다는 단체나 학교 학생회에서 조차 여성은 배제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언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성에 차별적인 사회 문



총여 존폐와 관련된 논란은 꽤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여의 '족속'과 '폐지'의 각 입장에서 유의미한 논지가 확보되지는 않은 채 총여 존폐 논란은 논란 그 자체로 확대 재생산을 반복해왔다. 사진은 지난 2007년 서울캠퍼스의 총여 재신임 투표 관련 현수막

화는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도 여성은 배제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총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을 타파해 여성은 해방시키는 것이며 바로 그 곳에 총여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총여는 여성 억압적인 사회, 학교, 더 나아가서는 총학생회,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며 싸워 나가야 하는데, 이런 조직이 총학생회 산하에 존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총여를 여학생들의 자치회비 만을 사용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은 총여를 폐지하는 주장만큼이나 위험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처럼 총여가 공격 받고 있는 것은 폐미니즘, 여성운동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만연해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폐미니즘은 현대에 와서 오명을 쓰고 잘못된 비판을 받는 사상은 드물다고 생각한다. 요즘 흔히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는 '꼴페미', '페미니지'와 같은 말들 또한 이런 폐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비판에서 나온 단어라고 할 수 있다. 폐미니즘은 남자와 여자 간의 성대결을 촉발시키는 것 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의 반대다. 폐미니즘

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측면에서 여성은 억압하던 '모든 것'에서 여성은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으로 성을 나누는 성 이분법을 깨뜨리는 운동이며, 사상이며,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폐미니즘이어야 한다. 폐미니즘은 지금까지 고루한 악습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왔고, 자본에 대한 인간의 종속이라는 현재의 상황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주요한 사상 중에 하나로써 여전히, 그리고 미래에도 유효한 사상이다. 그렇기에 총여가 폐미니즘을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총여가 이러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번 총여 선본의 공약은 꽤 우려스럽다. 총여를 여학생들의 자치회비 만을 사용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은 총여를 폐지하는 주장만큼이나 위험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총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현재하고 있는 활동을 넘어서는 활동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이것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물론 총여는 여성들의 자치회비 만으로도 운영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는 그렇지 않은 자치기구가 많다. 소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당연히' 총여, 총여 학생회를 지원하

고 모든 학생이 읽지는 않지만 학내의 정보들을 성역 없이 전달하여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당연히' 대학주보를 지원하는 이런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끝은 학생 사회의 파탄일 것이다.

총여를 여학생들의 자치기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물론 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총여 폐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여가 여학생들의 자치기구에 머무르는 순간 위에 서 말한 총여의 존재 이유에서는 점차 멀어지게 될 것이고, 총학생회를 비롯한 다른 자치기구와의 차별점은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에게는 성차별을 교내에서부터 타파하기 위한 총여가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총여 학생회는 단순히 여학생들의 자치기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폐미니즘 운동을 해나갈, 투쟁하는 총여 학생회가 되어야 한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생각의 지도'를 제시한다. 그렇게 '글쓰기 2'는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의 중추로서 교양과 전공 사이의 디딤돌 역할을 담당한다.

'성숙한 소통'과 '현명한 공존'을 위해 '글쓰기 2'는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을 강조한다.

'비판적 사고'는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왜'라는 질문만이 기성 세대의 담론이 만들어놓은 이 세계에 대해 균열을 가하며, '내 목소리'를 담금질하는 물적 토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쓰기 2'에서는 '관찰하라, 의심하라, 예민하라, 망명자의 눈을 가지라, 야자의 편을 들라, 새로운 개념을 만들라' 등의 6가지 항목을 강조한다. 온몸의 발상과 세심한 관찰로 이 세계를 회의(懷疑)하면서 자신

만의 촉수를 민감하게 버리며, 제3자적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세계를 재정의하려 할 때,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글쓰기 1'에서 글쓰기의 시발점을 '나'로 삼아 지나온 생의 궤적을 들여다보면서 '5단락 글쓰기'를 통해 '글을 읽고 생각하고 쓰는' 정신의 근육을 단련했다면, 이제 '글쓰기 2'는 인간과 욕망, 사회와 체제, 지구와 미래 등의 세계를 탐문한다. 그것들의 표정은 정체성과 사랑, 공동체와 자본주의, 생태계와 문명으로 연결되면서 구체화된다. 그리하여 '개별적 인간의 정체성'으로 시작하여 '미래 문명의 가능성'에 대한 템에 이르기까지 6가지의 소주제들로 '5단락 형식'의 '논리적 글쓰기'를 수행한다. 개

**총여가 두고 있는 현행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성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성 이분법적인 구성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

**총여가 두고 있는 현행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성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성 이분법적인 구성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

교양리포트⑫  
[글쓰기 2]

## '비판'과 '논리'의 양날개로 눈을 뜨다



'글쓰기 2'는 '글쓰기 1'의 교육목표와 내용, 강의 방식을 심화, 확대한다. 글쓰기 2는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학술적 글쓰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제1 목표로 하는 수업이다.

'글쓰기 2'는 '글쓰기 1'의 교육목표와 내용, 강의 방식을 심화, 확대한다. 글쓰기 2는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학술적 글쓰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제1 목표로 하는 수업이다.

2014년 11월 현재 '눈 먼 자들의 국가'(박민규)인 대한민국에서도 글쓰기는 유효하다. 현재 진행형인 참사 앞에서 무기력과 분노 사이를 배회하는 '냉소와 비관과 망각'의 과정을 넘어서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기획하고 모색하는 후마니타스인에게도 더욱 필요로 요구된다.

글쓰기는 삶 쓰기다. 글을 쓰는 가운데 자신이 지나온 삶의 궤적이 자연스레 배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글쓰기는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삶과 세계에 대해 신중하게 말을 거는 사유의 기록에 해당한다. '글쓰기 2'는 '글쓰기 1'을 위한 글쓰기'에 이어 '세계와 나'의 관계를 질문하며 '학문적 기초'를 견실하게 만드는 교양의 토대 역할을 수행한다. 그 질문은 '비판'과 '논리'라는 두 날개를 통과하며 구체화된다.

'글쓰기 2(대학 글쓰기 : 세계와 나)'는 학년 때 학습한 '글쓰기 1'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만, '글쓰기 1'에서 제기하는 자기 성찰성과 관계론적 타자성이라는 테제를 안고 넘어선다. 뿐만 아니라 중핵교과(인간의 가치 탐색과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의 인식론적 사유 능력과 시민교육(제2의 탄생)에서의 실천적 문제제기를 함께 녹여낸다. 그리하여 '글쓰기 2'는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인간과 사회와 자연이 어우러진

별 전공과 관심 영역에서 주려진 자료들을 읽고 소화하면서 새로운 주제와 개요를 재구성해 볼으로써 논리적 체계화를 반복 훈련하는 것이다.

'글쓰기 1'에서 반복 수련한 '5단락 글쓰기'의 형식은 '글쓰기 2'에서 1학기 동안 A4 7장 정도(200자 원고지 50매 내외)의 '소논문 1편'을 작성하는 훈련으로 확장된다. 이때 '소논문'은 단번에 작성되지 않는다. 주제와 개요가 구성된 뒤에도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고쳐 쓰기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더 나은 논문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비판적 문제제기가 예리해지고 왜소했던 처음의 논리가 정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의 소논문 작성성이 마무리되면 학기가 종료되지만, 학술적 글쓰기의 여정은 그때에야 비로소 새로이 시작된다. 새로운 주제를 찾아 비판적 사고로 논리적 표현을 수행하는 임무는 여전히 전공과 교양 수업에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대학 글쓰기'의 숙명이다. '비판'과 '논리'의 양날개로 '글쓰기 2'를 체험한 후마니타스인은 '더 나은 인간'과 '더 나은 세계'를 모색하기 위해 모순되어로 착종된 이 세계를 읽고 생각하고 쓰는 '호모 코기타무스(homo cogitamus, 共思人)'다. 그렇게 '눈을 뜯은 자들'이 '눈 먼 자들의 국가'를 책임질 후마니타스인 것이다.

# 알바 노동자의 권리, 휴게시간과 근무조건

## 알바노동자 필수상식④

김재섭 알바노조 경희대 분회 분회장

이번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알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알바노동자 섭섭 씨는 카페 알바다.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총 8시간 근무를 한다. 이곳의 근무 조건은 다음과 같다. 손님이 없을 때 휴식할 수 있고(단 손님이 오면 일해야 한다), 카운터에는 의자가 없다. 그리고 유니폼이 지급된다. 흔히 볼 수 있는 근무조건이다. 이 근무조건에서 문제가 되는 점들은 무엇일까?

여기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휴게시간’이다. 아쉽게도 현행법상에서는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한다. 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총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섭섭 씨에게는 따로 규정돼 있는 휴게시간이 없다. 손님이 없을 경우 손님이 들어올 때 까지 쉬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섭섭 씨에게는 근로시간 동안 약 1시간 가량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휴게시간동안은 낮잠을 자도 되고, 피시방에 갔다 와도 되고, 핸드폰 게임을 해도 된다. ‘자유롭게’라는 말은 관리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과거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부린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그것은 휴게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업종과 상황에 따라 휴게시간의 일률적인 부여가 어려울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가 그런 경우인데, 대부분 편의점 알바는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업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면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편의점 사례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편의점이라 할지라도, 중간

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점주가 잠깐 나와서 일을 하든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섭섭 씨에게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카운터에 의자가 없는 것도 문제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의자를 카운터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제1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현행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임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근로기준법의 제 4조, 5조에서는 근로조건을 이렇게 설명한다.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키키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로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정한다. 그렇기에 노동자는 끊임없이 자신에

게 필요한 근로조건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법 상에서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일하도록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주어져 있다.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법상에서 법적인 정당성을 가진다.

물론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약을 맺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8시간을 서서 근무해야 하는 섭섭 씨의 입장에서는 카운터에 의자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 하지정맥류의 위험이 있다.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관절염에 시달릴 수도 있다. 당당히 사장님과 싸우기는 어렵겠지만, 조심스럽게 말을 끼내보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겪을 것이다. 심각한 경우 알바 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관리자의 폭언을 당하기도 한다. 12시간을 서서 일하는 사람,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사람, 진상손님을 응대해야 하는 사람 등 다양한 근무조건을 겪고 있는 알바 노동자가 있을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지만 대다수의 사용자(사장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벌금을 받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서 건강하게 일해보자.

## 참여마당

윤장한  
(경영학과 2009)



## 복지 확충 위한 재원 마련 사회적 기업이 유력한 대안

지난 2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60대 노모와 30대의 두 딸이 자살했다. 소위 ‘세 모녀 사건’이라 불리는 일이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이 존재한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복지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 늘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제도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마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유력한 하나의 방법은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일반 기업처럼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이윤을 내지만, 그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목적’이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환경보호,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관한 관심은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 증폭되었고 민간 부문에서 노력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제도적으로 자리잡아 왔다.

**재원마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유력한 하나의 방법은 ‘사회적 기업’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 정부 주도로 육성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지역 문화, 레저, 레크리에이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그 효과를 내고 있는 유럽의 사회적기업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그 효과가 미미하며 규모 또한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영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 6만 8,000개나 존재하는데 반해서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1,165개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적절한 자금지원체계가 없다는 것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

앞서 말했듯 유럽의 경우 사회적 기업은 민간 부문의 노력으로 먼저 이루어졌기에 민간 투자의 비중이 상당하고 그 자생력 또한 높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 증권거래소’라는 사회적 기업만을 위한 자금조달 창구가 있어 자본을 제공받기도 용이하다.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기 때문에 재정 구조에 있어 정부지원금이 20%나 되며 정부 의존도도 높다.

사회적 기업은 이미 그 효과가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입증이 되었다. 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고령화, 실업, 부의부 빈익빈 등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에게 적절한 자금지원체계가 마련되고, 대중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자리 잡아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꿈꾼다.

### ▶ 1면에서 이어짐

다른 하나는 인류의 자연적 감정이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진실하고 정의로우며 인간애가 많다면 인류의 자연적 감정은 그를 ‘선한 사람’으로 여기고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반대로 그가 거짓되고 불의하며 무자비하다면 인류의 자연적 감정은 그를 ‘악한 사람’으로 여겨 불신과 경멸과 분노를 나타낼 것이다.

이 두 차원의 자연은 별개로 작용한다. 사물의 자연적 진행은 영리하고 부지런한 악인(惡人)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인류의 자연적 감정은 덜 영리하고 덜 부지런한 선인(善人)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1759)에서 동감(sympathy)을 중심으로 인류의 자연적 감정을 분석하면서 도덕의 일 반 원칙(공평무사한 관망자의 관점)을 제시하였고, 『국부론』(1776)에서 부를 창출하는 사물의 자연적 진행을 분석하면서 정치·경제학 원리를 제시하였다. 동감에 바탕을 둔 도덕 행위는 보다 풍요로운 부를 창출



선한 사람이 신뢰와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

**동감에 바탕을 둔 도덕적 행위는 보다 풍요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한다.**

도록 하려고 한다. 사물의 자연적 진행은 영리하고 부지런한 악인(惡人)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인류의 자연적 감정은 덜 영리하고 덜 부지런한 선인(善人)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1759)에서 동감(sympathy)을 중심으로 인류의 자연적 감정을 분석하면서 도덕의 일 반 원칙(공평무사한 관망자의 관점)을 제시하였고, 『국부론』(1776)에서 부를 창출하는 사물의 자연적 진행을 분석하면서 정치·경제학 원리를 제시하였다. 동감에 바탕을 둔 도덕 행위는 보다 풍요로운 부를 창출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한다. 스미스는 단순히 ‘정치·경제학’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도덕·정치·경제학’을 제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물의 자연적 진행이 더 영리하고 더 부지런한 악인을 덜 영리하고 덜 부지런한 선인보다 우위에 서게 만들므로써 인류의 자연적 감정에 충격을 주는 많은 결과들을 산출할 경우 인류의 자연적 감정은 이에 개입하여 교정하려고 한다.” ‘교정’이라는 말에 주목하자. 스미스에게 인간 사회의 중력은 이기심이 아니고 동감이다.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한다. 스미스는 단순히 ‘정치·경제학’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도덕·정치·경제학’을 제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물의 자연적 진행이 더 영리하고 더 부지런한 악인을 덜 영리하고 덜 부지런한 선인보다 우위에 서게 만들므로써 인류의 자연적 감정에 충격을 주는 많은 결과들을 산출할 경우 인류의 자연적 감정은 이에 개입하여 교정하려고 한다.” ‘교정’이라는 말에 주목하자. 스미스에게 인간 사회의 중력은 이기심이 아니고 동감이다.

### [서울C] 2015-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15-1학기 우정장학을 수혜받으려면 “국가장학 1차”신청을 원료해야 합니다.

국가장학 1차 신청기간: 2014.11.20.(목) ~ 12.8(월) 18시 교내장학 신청기간: 2014.12.1.(월) ~ 12.31(수)

#### 1.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2014. 12. 1(월) ~ 12. 31(수) [한달간]

- 신청대상: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

\* 1. 기존 교내입시/보훈/경희기숙/고시 등

· 교외 계속장학생도 반드시 교내장학금 신청

2.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급여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음.

3. 장학 선발자: 2015-1학기 미등록시 선발이 취소됨.

#### 2.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총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장학/용지신청]→[교내장학금, 신청]	
1. 2015-1학기 우정장학, 우정장학, 모범장학, 밝은희망장학 등 특별모집을 제외한 모든 장학 신청을 “2015-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으로 통합함. 2. 장학금신청서와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음. 3. 가계교내증명서 제출 생략 * 단, 장학장학 수혜희망 학생은 국가장학 1차 신청을 반드시 필해야 할. 4. 장학신청서 소속 단과대학에서 반드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서류 제출	해당자 및 제출서류
정소 (예금자에 한함)	- 소속대학 행정실 → 고시원학자신청서 1부 - 장애학생: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학생본인의 장애인 등록카드 사본 1부) - 보험기록증명서(학자금):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보증지정증명서) 1부 - 경기고속버스기록증(학자금): 보증자, 재직증명서, 경기고속버스기록증(학자금) 각 1부 * 기존 계속장학생(입시, 보훈, 경희기숙장학) 중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기간에 신속히 신청요망
지급 제한	장학금 지급정액에 위배된 자 · 지급방법: 등록금 고시에서 학비면면 - 등록방법: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등록을 필해야 함. * 고지서 납입일이 “0”원인 전액 장학생도 반드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등록 절차은행수납인을 필해야 함.
장교사장	1. 2015-1학기부터 우정장학금은 장학팀에서 지급함. 2. 장학금 선발기준(수수, 모범, 밝은희망장학단대) 관련 세부사항은 학생 소속 단과대학(전공) 행정실로 문의. 3. 고시 및 각종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 불가 (이중수혜시 환수 조치, 단 등록은 범위 내의 국가장학금은 이중 수혜 인정). 4. 전자생의 경우 진출전입하는 학기에는 소속 단과대학 학부(과)에서 신발하는 우수장학, 모범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단, 우정장학금은 수혜 가능). 5. 계속장학생이 2015-1학기에 휴학할 경우, 계속장학 외의 타 장학수혜기록을 경우에는 2015-1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 요망(미등록필화학). 6. 위 기간 내의 장학금 미신청자는 2015-1학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 인물

# “역사성과 공공성, 오래도록 쥐고 갈 건축적 화두”

인터뷰 - 손지훈

대한민국 건축대전 대상 수상자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 건축학은 공학의 여타 학문들과는 달리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인상은 비단 그 자체의 의미만 넘어 지역사회에 풍경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 건축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우리학교의 손지훈(건축학 2007) 군은 ‘2014 정림학생건축상’, ‘제11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 ‘제33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등 짚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건축가로서 나름의 가치관을 세심하게 확립해가고 있다. 손 군을 만나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따뜻한 건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뭔가 ‘예술적인 자아’를 지닌 전문가의 모습을 꿈꾸며 건축가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니었다. 그저 어린 시절부터 ‘만드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지식을 단순히 암기해서 습득하는 것보다는 실습을 통해 체험해가는 방식에 좀 더 흥미를 느꼈을 뿐이다. 손 군은, 건축에 대한 거창한 꿈이 있었던 그보다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건축학과를 지원했었다.

하지만 손

군은 문과 출신이었다. 교차지원으로 건축학과 입학엔 성공했지만, 이과적 성격이 짙은 건축학과의 커리큘럼은 손 군의 마음처럼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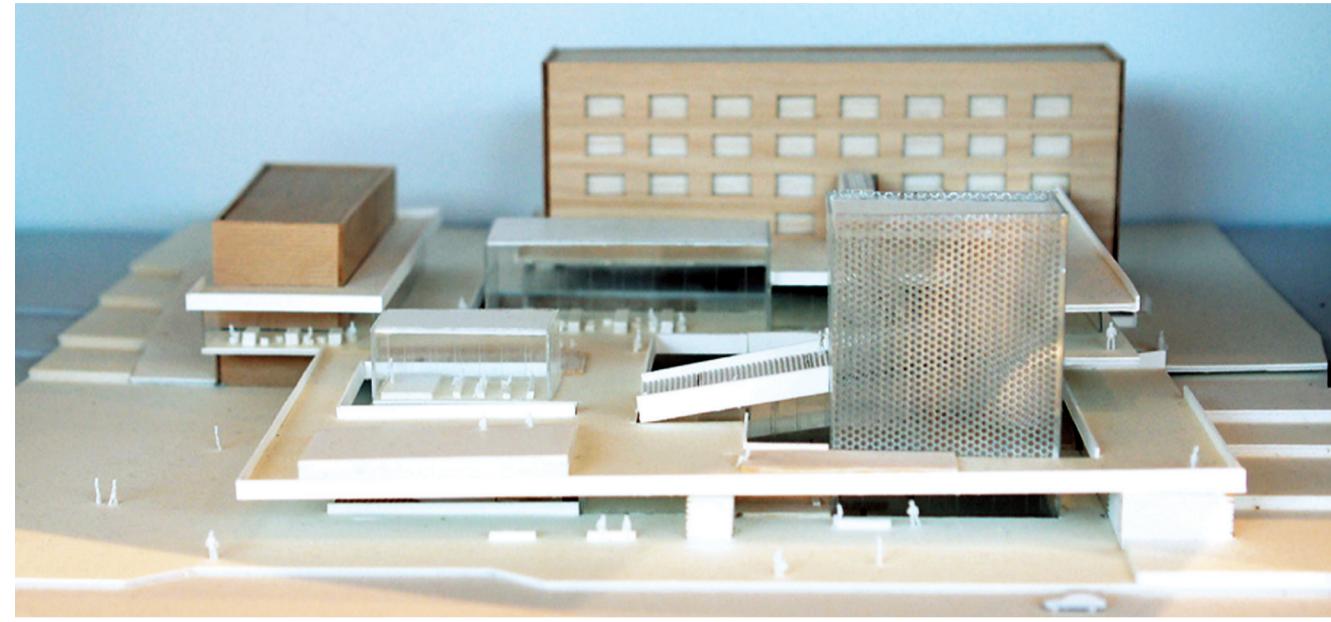
“1·2학년 때는 다른 학생들에게 열등감 까지 느꼈지만, 좋은 선배들을 만나게 돼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가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정석을 좇아 기초부터 차근차근, 손 군은 이것이 나름의 정공법이라 여기며 성실히 배웠다. 그 덕분에 건축사사무소의 교수님 밑에서 두세 달 동안 건축실무를 맡아볼 무렵이던 3학년 무렵에 손 군은 “설계가 너무 쉬웠고 ‘그냥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일이 잘 풀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공법’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손 군의 작품에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실무를 마치고 4학년이 됐을 무렵, 제 학교 프로젝트 작품들에 대해 주위에서는 ‘너무 뻔하고 정석대로만 가는 것 같다’는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 평가 속에서 스스로 제 작품을 돌아보니, 정말 개성이 없어 보였고 마치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까지도 들었죠.”

방향이 시작됐다. ‘나의 색깔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됐고, 손 군은 잠시 시간을 갖기 위해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입대를 선택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았던 2년의 군 생활은 결과적으로 손 군에게 큰 보탬이 됐다. 2년간, 그는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작품이 설명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불친절해서 마치 지식자랑을 늘어놓는 것 같은 분



손 군이 지향하는 건축적 가치관은 ‘건축물의 역사성 보존’과 ‘건축물의 공공성 확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위기였다’는 자아진단을 내리고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을 다시 거듭했다.

그리고 작년 겨울을 전역한 손 군은 자신의 건축적 가치관을 가다듬은 이후, 단독으로 혹은 공동작업으로 여러 대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는 2014 정림학생건축상 대상(신태섭<건축학 2008> 공동작업), 제11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 대상(문재원<건축학 2008>, 김영미<건축학 2009> 공동작업), 제33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국제 일반 공모전 대상(단독작업) 등에서 연달아 작품세계를 인정받으며 지난 고뇌의 시간을 보상받았다.

현재 손 군이 지향하고 있는 건축적 가치관은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 수상작과 대한민국 건축대전 수상작을 통해 어느 정도 염볼 수 있다.

국제적인 근대문화 유산 보존단체인 도코모모 인터내셔널(Docomomo International)의 한국지부 도코모모 코리아가 주관한 디자인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세운상’과 리모델링 앤’에서, 손 군은 건축물이 지니는 시간성을 ‘시대상과 역사의 보존’이라는 키워드 아래 강조

시킨다. 그는 이미 슬럼화가 진행된 공중 보도 등 최소한의 요소들만 조정하고 전체적인 매스에는 크게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세운상 가가 스스로 완공 당시의 시대성을 운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운상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고려되지 않은, 그래서 종종 ‘해

방 이후 최악의 건물’들 중 하나로 뽑히고는 독불장군 같은 건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특성 자체가 곧 세운상의 건설 당시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던 건축물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지 지금 시점에서 이질적이라는 이유로 선불리 철거해버리면 건물의 시간성은 영원히 사라져버려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지죠. 그래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미래세대로 유예하고 시간성 자체를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현재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는 재생건축의 사례들이 많은 참고가 됐다고 한다. ‘마포 석유비축기지 공원조성사업’ 등 오래된 구조물을 철거하는 대신 도시의 역사와 보존하는 방식의 건축적 접근을 세운상가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킨 셈이다.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을 통해 ‘건축물의 역사성 보존’을 강조한 손 군은, 대한민국 건축대전의 대상자 ‘학교로 동네 만들기’를 통해 ‘건축물의 공공성 확장’을 시도한다.

그는 거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가 이미 도시계획의 중심에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교 구역의 확장과 개방을 통해 학교가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의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가능을 확장시켰다.

이 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인 학교의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

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했다.

“이와 비슷한 성격의 사업으로는 2002년부터 각급 교육청 주도로 진행된 ‘학교 공원화 사업’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당시의 학교 공원화 사업이 단지 담을 허무는 수준에서 진행이 되었다면, 이번 출품작을 통해 하드웨어적인 건축물 뿐만 아니라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측면도 제안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수의 외부인이 자유롭게 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의 감시효과’를 통해 역으로 범죄 발생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됐다.

공공건축에 대한 손 군의 이런 건축관은 고(故) 정기용 건축가의 ‘무주 프로젝트’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훌륭한 의미를 발산하는 공공건축이 아닌, 동네를 향해 열어놓음으로서 동네와 조화가 되고 공공건축 자체가 동네의 일부가 되는 ‘조화로운 공공건축’의 방향성을 주준히 고민한 결과다.

건축물의 역사성과 공공성은, 아마도 손 군이 꾸준히 불들고 나아갈 건축적 화두가 될 것 같다. 그는 커다랗고 거대한, 그래서 흡사 건축가의 이름을 아로새기는 듯한 건축물 보다는 시간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는 자연스런 건축물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사람들의 일상을 기억하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 머무는 좋은 풍경 같은 건축물, 그것이 이제 막 건축가로써 세상에 밟을 내밀고 있는 손 군이 꿈꾸는 건축이다.

**20대,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강연 전 20분, 학생강연자 Speech가 진행됩니다.

**김태원**  
구글코리아 팀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WED  
2014/11/26  
PM 5:00**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3F 피스홀

**20대,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강연 전 20분, 학생강연자 Speech가 진행됩니다.

**김태원**  
구글코리아 팀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WED  
2014/11/26  
PM 5:00**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3F 피스홀

**201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 · 국제)**

**1. 개설학기 주요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개설교육 확인	2014. 11. 17(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학번부여(학점교류생)	2014. 12. 03(수)	SMS 안내 문자 발송※ 학점교류생에 한함
수강신청기간	2014. 12. 11(목) 10:30 ~ 12. 15(월) 17:00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 시간표'
폐강공고	2014. 12. 15(월) 12:00 [화]~2014. 12. 19(금) 09:00 [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4. 12. 16(화) ~ 12. 18(목) 16:00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신청기간 (폐강공고 수강생)	2014. 12. 15(월) ~ 12. 17(수) 17:00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폐강과목 수강여부에 한함
수업기간	2014. 12. 22(월) ~ 2015. 01. 14(수)	
성적열람일	2015. 01. 16(금) 부터	

**2. 개설기간 및 수업안내**

가. 개설기간 : 2014. 12. 22(월) ~ 2015. 01. 14(수) [16일간]  
나. 수업시간

구 분	학점	교 시	시 간 대	구 분	학점	교 시	시 간 대
서울캠퍸스	1학점 (실기)	1교시	10:00~11:50	국제캠퍸스	1학점/ 3학점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2교시	13:00~14:50					
	1교시	10:00~11:50	온라인강좌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4:50			2교시	13:00~15:45	
3학점	교시	09:00~11:45					

다. 개설교과목 수업 시간표 조회 : 2014. 11. 17(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에 공지  
라. 강의계획서 조회 : 2014. 11. 17(월)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링크' 클릭

3. 학점교류(대학 학생이 본교 개설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가. 출석기한 : 2014. 11. 28(금) 17:00 까지  
나. 학번부여 : 2014. 12. 03(수) SMS 개별 문자 발송

4.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 기간 : 2014. 12. 11(목) 10:30 ~ 12. 15(월) 17:00  
나. 수강 가능 학점 : 최대 6학점  
\* 학점교류, 국제교류학과 통한 어학연수, 단과대학 현장 연수활동 또는 Global Collaborative (구 Penn-KHU) 프로그램과 계절학기 동시 수강 가능  
다. 폐강 공고  
1) 차 : 2014. 12. 15(월) 12:00 [화]  
2) 차 : 2014. 12. 19(금) 09:00 [화]

5. 수강금액  
수강신청 방법 : 정규학기 수강료 + 수강신청료  
수강신청료 : 2014. 12. 16(금) ~ 12. 18(목) 16:00 등록금 납부기간  
수강료 : 2014. 12. 22(월) ~ 2015. 01. 03(금) 17:00 수강료 2/3환불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 반납하지 아니함(수강 취소 불가)

6. 등록 후 수강 취소 및 환불  
환불기준

환불기준	수강료기간	환불금액	수강료기방법
수업개시일 전까지	2014.12.19(금) 17:00	전액 환불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수업개시일부터 1/3 경과 전	2014.2.22(월) ~ 12.23(월) 17:00	수강료 2/3환불	방문→계절학기 등록금
수업개시일 1/2 경과 전	2014.12.30(화) ~ 2015.01.03(금) 17:00	수강료 1/2환불	환불신청서 작성(인명 의 통장 시본 동봉)※ 폐 교과목수강자 포함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		반납하지 아니함(수강 취소 불가)	

\* 환불금액 지급예정일 :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괄 지급함.  
(비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가. 개설기한 : 전공 10명 이상, 교양기초/선택/자유이수 20명 이상  
나. 강당 강화 개설여부는 각 단과대학 결정사항으로 해당 단과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다. 2014학년도 2학기 후기 등록 수강 중인 강당은 2014학년도 2학기(12월) 등록금 내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1) 입학사정 : 학년 2014학년도 학기 거울학기, 학번 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2) 조회내용 : 신청과목과 납부 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하나은행 가상계좌번호 확인

다. 납부방법 : 인터넷뱅킹/무통장입금  
라. 등록금 납부 전 본인이 불가하오니 등록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강이 불가하오니 등록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8. 문의처  
가.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2)961-9311, 9339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2층  
나.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31)201-3401~4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교육관 5층

후마니타스칼리지